

2011.05.23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국, 유럽 기후악화로 국제 밀 가격 상승 우려 여전

1. FINANCIAL TIMES(2011.05.17) 주요 내용

- 미국, 유럽, 캐나다 등 세계 주요 밀 생산국가들은 가뭄, 고온, 습한 날씨 등으로 인해 밀 생산량은 USDA의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 밀 가격의 상승 우려는 여전함.
 - USDA는 2011년 세계 밀 생산량을 지난해 6억 4,800만 톤보다 증가한 6억 7,000만 톤으로 전망함.
 - 그러나 다른 민간기구들과 곡물회사들은 북유럽과 미국 남부지역의 가뭄 등의 영향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.

<주요 밀 생산국의 상황>

- USDA에 따르면 미국 남부지역의 밀 생산은 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고 조기 수확이 불가피해 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.
 -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해 밀 품질은 44%가 최하위 품질이며, 이는 작년 대비 8% 증가한 것임. 또한 최상위 품질은 작년 66%에 이어 32%에 불과함.
 - 최대 겨울 밀 경작지대인 캔자스의 밀 생산량은 지난 1996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함.
- 유럽의 27개 국가들의 밀 생산량 중 65%를 차지하는 프랑스, 독일, 영국, 폴란드는 봄 가뭄과 고온으로 밀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.
 - 유럽의 최대 밀 생산국인 프랑스는 올해 밀 생산량이 12%, 독일은 7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- 캐나다와 미국 북부지역은 과도한 강수량으로 봄밀 파종시기를 놓치고 있음.

- 캐나다 소맥협회(Canadian Wheat Board)는 파종이 40% 이상 이루어진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파종이 3%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고함.

□ 미국, 농지가격 20% 급등

1.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05.13) 주요 내용

-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곡창지대인 중서부지역의 농지가격이 1분기에 20% 증가함.
 -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(Kansas City Federal Reserve Bank)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, 2011년 1분기에 네브래스카(Nebraska)와 캔자스(Kansas) 주의 비관개농지가격은 작년대비 24%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수준을 보임.
 - 시카고 연방준비은행(Chicago Federal Reserve Bank)의 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, 주요 옥수수 생산지대도 2010년 대비 12% 증가하여 지난 30년 동안 두 번째로 큰 증가수준을 보임.
 - 오클라호마(Oklahoma), 콜로라도(Colorado), 와이오밍(Wyoming), 뉴 멕시코(New Mexico)와 미주리(Missouri) 주의 농지가격도 증가함.
- 농지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생산량 감소, 신흥국가의 수요증가 등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많은 농업소득을 올리려는 농민들의 농지구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.
 - 또한 농지에서 시세차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, 그들은 지금 투자해야 하는 자산은 농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함.
-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인 토마스 호닉(Thomas Hoenic)은 앞으로 3분기 이내에 농지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.
 -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화폐정책 강화와 제로금리정책을 폐지할 계획임.